

# 풍림파마텍 새만금에 첫삽

### 첨단 의료용기기 생산시설 신축공장 기공식 가져 178억원 규모... 80여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감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풍림파마텍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첨단 의료용기기 생산시설 신축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8년 6월 전북도와 새만금 신공장 건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1년 6개월 만에 첫삽을 뜨게 됐다.

한국GM, 현대중공업 등의 대기업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고용, 산업위기 지역인 군산에 총 투자 규모 178억 원의

신공장 건립을 통해 약 8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완공을 예정으로 하는 신공장에서는 프리필드형 백신용 유리용기, 오토인젝터 자동주사기, 안전주사기, 각종 주사침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풍림파마텍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물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군산시의 협조에 조만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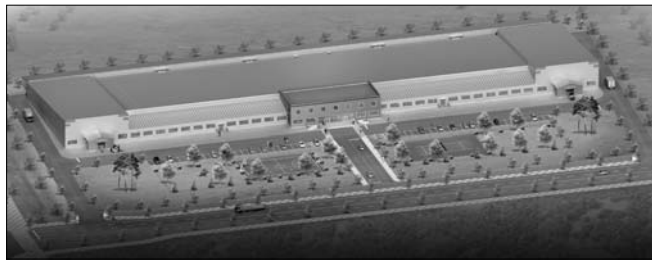
일회용 마스크 생산시설을 구축해 생산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마스크 생산 기계설비(인 KF80, KF94, 덴탈용 면마스크)를 계약 완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절차 등을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시작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마스크 공장이 만들어지면 지역의 마스크 부족난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풍림파마텍의 관계자는 "기후 변화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동화 설비 투자를 통해, 국내 제약시장과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하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풍림파마텍은 군산자유무역지역 내에 본사를 두고 1999년 7월 의료용품 제조 및 의료용 기기를 제조·생산하는 지역 내 강소기업으로 2010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창조적, 혁신적 신제품 개발에 힘쓰며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계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군산의 향토기업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풍림파마텍 조감도.

## 익산시, 위기극복 긴급 생계지원 모색

###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추경 편성, 경제안정 나서

정현을 익산시장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계각층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익산시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정현을 시장과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사회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업, 운수업, 외식업 등에서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

련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익산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을 보고받고 정부와 익산시의 대책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코로나19 관련 경제안정 지원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시민생활안정,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사업 등을 긴급추경에 편성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익산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통시장 임대료 50%, 상수도 요금 30%를 인하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

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카드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6월 말까지 10%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참석한 시민단체는 "정부 각종 대책이 금융지원에 집중돼 있어 지역소상공인까지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의 적극적인 감염방지 대응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 차원의 적재적소 지원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도내 최초 동물 찾길 사고 수거처리 시작

군산시가 전북도내 최초로 연중무휴 24시간 동물 찾길사고 수거처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는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평일 주중과 토요일 오전 시간은 수거처리가 되지만 평일 야간 및 공휴

일에는 익일 업무시간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의회 이한세 의원의 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처리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내 최초로 연중무휴 24시간 수거처리 서비스 운영을 추진한다.

채왕균 자원순환과장은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는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이를 피하러다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 왔다"며 "도내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만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불편사항과 안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송학동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부터 지안리자아파트까지의 학곡선 (총길이 820m), 4차선 도로확포장공사가 당초 계획된 공사기간보다 앞당겨 개통된다.

## 송학동 학곡선 4개월 앞당겨 6월 완공

### 최종 익산시의원 "주민피해 최소화" 업체관계자 설득 주효

익산시 송학동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부터 지안리자아파트까지의 학곡선 (총길이 820m), 4차선 도로확포장공사가 당초 계획된 공사기간보다 앞당겨 개통될 전망이다.

오산·모현·송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종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일정을 점검한 결과 공사기간을 약 4개월 앞당겨 오는 6월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은 비산먼지나 소음 등으로 발생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 공사현장을 수시로 찾아 공사관계자와 꾸준히 머리를 맞대고 개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호남작물시험장 자리에 위치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뒤를 지나는 송학동 학곡선은 도로 폭이 좁아 출퇴근

길 물려드는 교통량으로 많은 민원이 초래됐으나 4차선 도로가 개통될 경우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주민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생활에 불편이 많은 요즘, 주민숙원사업인 4차선 확장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송학동 학곡선 도로가 개통되면 이후에는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 오산까지 있는 연장선까지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학동 학곡선 4차선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41억 8200만원을 들여 2018년 10월에 착공해 2020년 10월말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꾸준한 업체관계자와 긴밀한 협조를 얻어내 개통일자를 4개월여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 '배달의 명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UP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출시를 앞두고 군산사랑상품권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3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음식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이미 정착화된 군산사랑상품권과 같이 끊임준 군산시장의 경제활성화 2번째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시는 최근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팽창과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군산만의 음식배달 어플인 '배달의 명수'로 대체된 골목상권에 희망의 불씨를 피울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시는 배달의 명수가 사용될수록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힘이 되며, 소비자는 지역상품권 결제와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사업주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하는 상생어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상점을 운영하는 박태진(38)씨는 "이번 '배달의 명수' 어플은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인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어 시민들이 자주만 이용해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면서 "이번 '배달의 명수'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군산이 성공을 이뤄 전국적으로 활성화되 우리같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임원진 공개 모집

군산시가 상반기 중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임원진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비영리 출연 기관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상임 및 비상임이사, 감사 등 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산시 전액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전환 본 센터를 구심점으로 학교·복지·공공·기업급식, 나아가 새만금 지구의 신생기업에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가공품 공급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사업영역 확장 및 지역순환경제 창출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개 모집에 앞서 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공개모집 대상 임원은 상임·비상임 이사 5명, 감사 1명 총 6명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대 유학생 전원퇴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생활관에서 보호 관리를 받던 군산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88명이 전원 보호조치를 마치고 지난 12일과 13일 건강한 모습으로 순차적으로 퇴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학 보호 방침에 따라 캠퍼스 내 학생생활관에서 생활해 왔으며 11일에 실시된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군산대학교는 총장 주관 아래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 보호 관리를 위한 비상대책반을 운영해왔으며 1인 1실 제공, SNS를 통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군산시청 및 군산소방서 등 지역 유관 기관과의 효율적 업무 연계를 진행해 왔다. /군산=김정훈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